



## 한국청년방일단(제 2~3 단) 초빙사업의 기록

###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한관계개선을 기반으로 한 방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등 64 명이 7 월 22 일~30 일까지,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방일하였습니다. 일행은 테마 “동일본대지진 부흥상황 시찰~미야기현을 중심으로” 하에 도쿄도, 미야기현을 방문하여 강의청강, 학교방문, 홈스테이, 시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한국 고등학생 등 총 64 명

【방문지】 도쿄도, 미야기현 총 64 명

#### 【일정】

#####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사전학습) :

7 월 15 일(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 초빙 프로그램 :

7 월 22 일(화)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착시 오리엔테이션

7 월 23 일(수) 【시찰】 소나에리어(방재 체험 학습 시설)

【예방·강의】 외무성 “최근의 일한관계에 대하여”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장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7 월 24 일(목) 미야기현으로 이동

【강의】 미야기현 “지진피해로부터의 부흥상황과 지진피해의 전승”

【예방】 주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관

7 월 25 일(금) 【학교방문·교류】 미야기현 시오가마고등학교

7 월 26 일(토) 【시찰】 미야기 동일본대지진쓰나미전승관, 이시노마키 미나미하마 쓰나미부흥 기념공원, MEET 가도노와키, 진재유구 가도노와키초등학교(전부 해설원과 함께), 홈스테이 대면식

7 월 27 일(일) 종일 홈스테이

7 월 28 일(월) 홈스테이 해산식

【시찰】 미나미산리쿠초 마나비퀘스트(필드워크)

【시찰】 바다의 부흥과 보전·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하여

7 월 29 일(화) 【시찰】 진재유구 오나가와 구 파출소, 액션플랜·감상발표회

7 월 30 일(수) 도쿄도로 이동, 하네다국제공항에서 출발

## 2. 기록사진



7 월 23 일 【예방·강의】 외무성 “최근의 일한 관계에 대하여”



7 월 24 일 【강의】 미야기현 “지진피해로부터의 부흥상황과 지진피해의 전승”



7 월 25 일 【학교방문·교류】 미야기현 시오가마 고등학교



7 월 26 일 【시찰】 이시노마키 미나미하마쓰나미 부흥기념공원



7 월 26 일 【시찰】 지진피해유구 가도노와키 초등학교



7 월 28 일 【교류】 홈스테이 해산식 모습



7 월 28 일 【시찰】 바다의 부흥과 보전·지속 가능한 활용에 대하여



7 월 29 일 【시찰】 진재유구 오나가와 구 파출소

### 3. 참가자 감상(발체)

#### ◆ 한국 고교생

지진피해유구인 가도노와키초등학교와 미야기 동일본대지진쓰나미전승관, 이시노마키 미나미하마 쓰나미부흥기념공원을 방문한 것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쓰나미가 덮친 피해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당시 가도노와키초등학교의 사망자가 7 명밖에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이런 큰 재해로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지만,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재해대책이 매우 치밀하게 고안된 것임을 알았고, 저 자신도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 한국 고교생

미야기현에서는 동일본대지진에 관한 강의를 자세하게 청강했습니다. 미야기현 주민은 실제로 재해를 경험했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량을 비축하고 훈련에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도 화재나 지진 훈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동장을 산책하는 듯한 감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모두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훈련에서는 실전처럼 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 한국 고교생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자연재해가 남긴 상흔과 그에 맞서 온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구 가도노와키초등학교와 동일본대지진쓰나미전승관에서는 피해 당시의 참상과 희생자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지역 주민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희망의 메시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 ◆ 한국 고교생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곳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학교 방문 시 생긴 친구들과 호스트 패밀리 여러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해주시고 일본어로 대화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책과 뉴스로만 접했던 일본의 부흥현장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난 모든 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 4. 일본측 감상(발체)

#### ◆ 미야기현 부흥·위기관리부 부흥지원·전승과 관계자

이번에 한국청년방일단(제 2~3 단) 여러분들께 “미야기현의 부흥 상황과 지진 재해의 전승”에 대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평소의 대비 등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 강의를 계기로, 한사람 한사람이 방재의 중요성과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생각하고, 평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 미야기현 교육여행 등 코디네이트지원센터 관계자

이번에 저희 현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등의 감상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지식부족, 경험부족도 있고, 한국분들에 대한 대응에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개선하여 다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미야기현 시오가마고등학교 관계자

한국청년방일단이 본교에 방문하여, 양국에 있어 귀중한 교류를 실현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해외 고등학생과의 만남의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교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 상호의 생각을 대화를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을 간직하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미야기현 시오가마고등학교 관계자(학생)

일본과 한국에서는 서로의 나라에서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본에 와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한국분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마음을 통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많고, 이야기를 주고 받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는 제 평생의 보물이 되었고, 일본과 한국을 잇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 가미마치 홈스테이 담당가정

담당한 아이들은 모두 솔직하고 의사표시도 잘 하는 아주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식기를 정리하는 등 돕기도 하고 저희집의 초등학생과도 금방 친해져서 화기애애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교류해 준 덕분에, 저희 가족에게도 아이에게도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외국 아이들과 이렇게 가깝게 친밀감을 느낀 것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5. 참가자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p>일본 위무성을 방문하여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경험은 매우 뜻깊고 인상 깊었습니다. 외교관님은 과거사, 경제 협력,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주셨고, 차연한 현실적 과제뿐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p> <p>특히 양국 정부 간의 대화 노력, 청년 교류 확대, 문화적 상호이해 증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으며 외교가 단 순히 갈등을 조율하는 것을 넘어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또한 강의 중에는 일본 측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도 소개되어, 외교라는 분야가 얼마나 상세하고 다층적인지를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 8 Q 0 0 0 0</p> <p>님의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p> <p>3일차엔 미야기현을 방문해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부흥 상황과 진재의 전승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진 발생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 또 그 경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p>

2025년 7월 23일(NAVER blog)

외무성을 방문하여,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경험은 매우 뜻깊고 인상 깊었습니다. (중략) 특히 양국 정부간의 대화 노력, 청년 교류 확대, 문화적 상호이해 촉진 등 구체적인 협력안을 들으면서, 외교가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는 것뿐 아니라, 신뢰회복과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는 일본측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과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도 소개되어, 외교라는 분야가 얼마나 섬세하고 다층적인지를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4일(Instagram)

3 일차에는 미야기현을 방문해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부흥상황과 지진피해의 전승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14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 또 그 경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4일차 가장 기대했던 일본 고등학교 방문의 날이 되었습니다. 시오가마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일본 학생들이 밝게 맞아준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로 함께 활동하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세대 학생들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오가마의 학생들의 안내로 시오가마신사 등을 둘러보고 문화와 자연, 사람들의 따뜻함을 접하면서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때는 너무나 아쉬웠지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런 피해 당시의 상황과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관하여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정말 슬펐던 곳이다 쓰나미 당시 실종된 아이의 가방이나 옷 피해로 인해 하늘로 떠난 아이들의 당시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다

2025년 7월 25일(Instagram)

4 일차는 가장 기대했던 일본 고등학교 방문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오가마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일본 학생들이 밝게 맞아준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로 함께 활동하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세대 학생들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오가마의 학생들의 안내로 시오가마신사 등을 둘러보고 문화와 자연, 사람들의 따뜻함을 접하면서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때는 너무나 아쉬웠지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2025년 7월 26일(NAVER blog)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당시의 상황과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쓰나미 당시, 실종된 아이의 가방이나 옷, 피해로 하늘로 떠난 아이들의 당시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작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감사하고 해주시고 다같이 과자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진 당시에 미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경험담과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나 속상해지고 마음이 안좋아지더라..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간다  
 지금 무사히 잘 계시니 다행일 따름이지만 당시에 놓가셨던 많은 분들이 다 집이 없어지거나 하셔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2025년 7월 26일 (NAVER blog)

저희가 드린 선물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감사하다고 해 주시고 다같이 과자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진 당시에 미야기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경험담과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속상해지고 마음이 안좋아지더라.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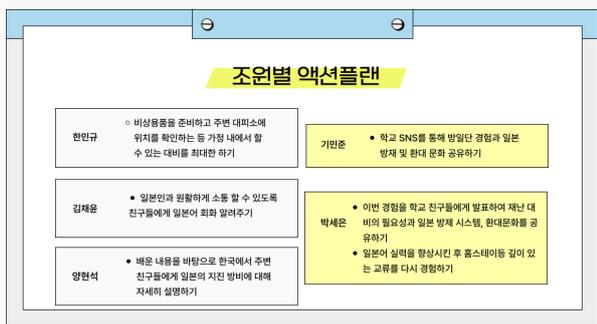
지금 무사히 잘 계시니 다행일 따름이지만 당시에 놓가셨던 많은 분들이 다 집이 없어지거나 하셔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2025년 9월 19일 (가호쿠 신보사 가호쿠 클리센다이 주니어)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 60명은 주대한민국일본국 대사관에서 선발된 "한국청년방일단" 멤버. 동일본대지진 부흥현황 등의 시찰에 미야기 현을 비롯한 국내 각지를 방문했다. (생략) 네기시 교장은 "국제 교류는 상호 신뢰, 타자 이해의 소중한 기회. 이번과 같은 실제 체험은 온라인이나 책과는 또 다른 큰 배움이 됩니다. 이문화와 접하는 것으로 상대 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며 상대와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하고 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개요 또는 발체를 기재)



【성과 발표】

• 방일전에는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신문 등을 보고 아는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방문하여 피해지역의 부흥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대지진이 남긴 상흔을 현실적으로

**방일단 참여 소감**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상과 충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다 오래지 않은 사이클이 일본이 극복하고 이를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과 이후 세월이 흐르지만 남은 카도노야마 초등학교 외관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공중에서 이 구조물 건물과 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낯익은 공간에 주는 충격은 지극히 큰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비난을 하며 일정을 이 곳에서 저는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정하는 시간을 앞둔 이 곳에서 그들을 믿었습니다. 이런 시정을 통해 저는 지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가 남기어 간 자리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션플랜**

- #1 우리나라 재해 정보 탐색  
 최근 지진 피해 사례 조사, 피해규모, 문제점을 탐색  
 → 자연재해 발생시 한국의 취약점 도출
- #2 1번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중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보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ex) 비상재난 구르기 실습, 지역사회 대피도 만들기
- #3 SNS 포스트  
 방일단으로서 하루 하루 느린 걸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습니다.

【성과 발표】

• 시찰과 가타리베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남는다는 것이 꼭 '행운'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있는

<p>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일본사회의 체계적인 재해 대응 방법과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노력, 방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지 시찰을 통해 생존자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재해’라는 단어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재해는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고, 경계심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li> <li>• 동일본대지진이 남긴 피해의 심각성과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부흥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헌신성과 그 열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정신에 대해 깊이 감탄했습니다.</li> </ul> <p><b>【액션플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시의 피난의 중요성과 일본의 방재시스템에 대해 수업시간에 발표하기</li> <li>• 유사시의 자택피난경로를 확인하고, 재해시에 소지할 수 있는 방재배낭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정비하고 그 활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li> <li>• 방일단에서 얻은 경험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소개하기</li> <li>• 방재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포스터와 카드뉴스, 재해시의 체크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li> <li>• 이번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진대책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li> <li>• 방송위원으로서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에 관한 콘텐츠를 작성하여 널리 전달하기</li> </ul>	<p>사람들을 사랑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야기 동일본대지진쓰나미전승관’과 ‘가도노와키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쓰나미의 높이를 표시한 전시와 건물, 실제 피해사진을 보고 자연재해의 위협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관련사’라는 처음 듣는 단어에, 재해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li> <li>•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든 기억을 잊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 고통을 후세에 전달하여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피난훈련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노력의 축적이 만약의 사태시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나 자신도 앞으로 피난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li> </ul> <p><b>【액션플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과학시간을 활용하여, 일본의 내진건축 구조에 대해 탐구하기</li> <li>• 한국에서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규모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탐색하기. 또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비상용 배낭 준비와 지역의 피난경로 등 방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기</li> <li>• 내가 다니는 학교의 지진대응에 대해 생각하고 피난경로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기</li> <li>• 방일활동에서 배운 방재지식과 피난요령을 가족과 공유하기. 또한, 피난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가족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li> </ul>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